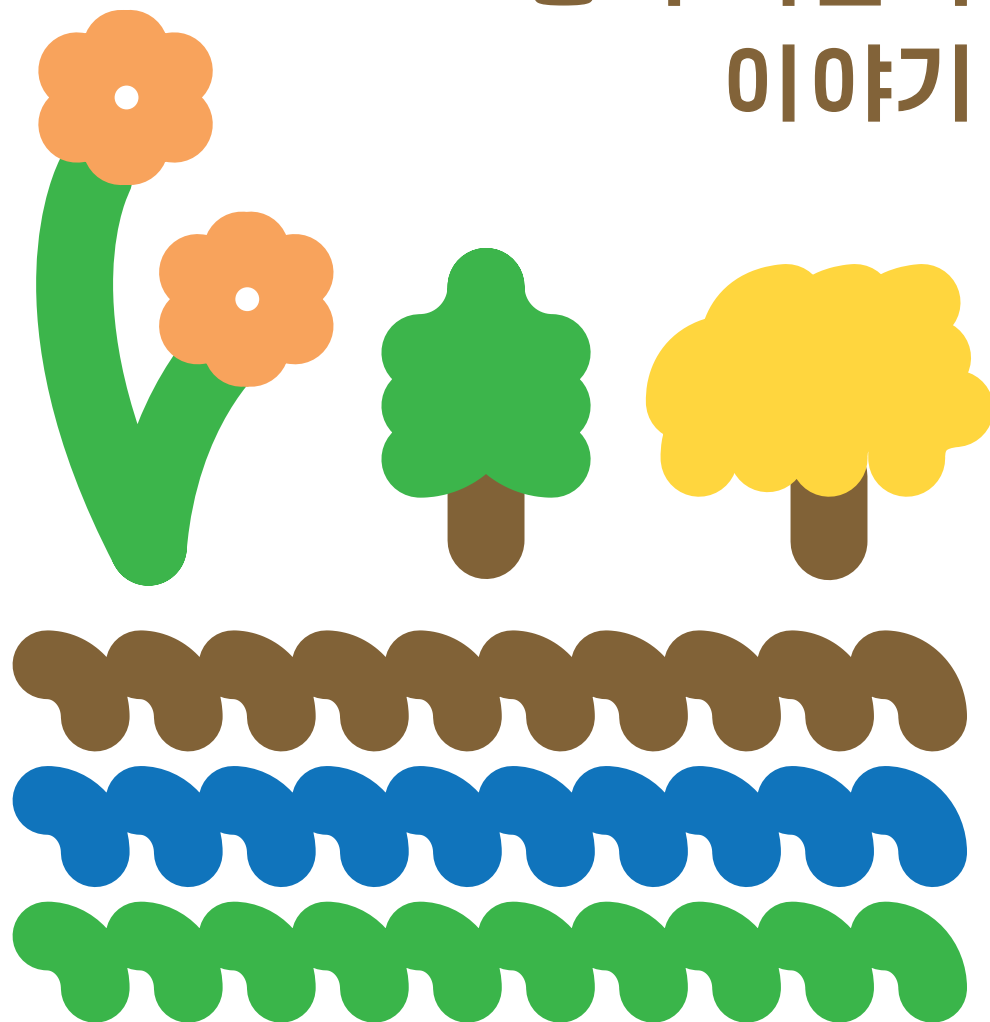


2023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목차

만남

2023 경기 에코뮤지엄	006
‘안산:땅과 시간의 이야기’ 걸어온 길	008
안산 에코뮤지엄 이음지도	010
대부도고랫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012
사동지역사모임	014
온새미로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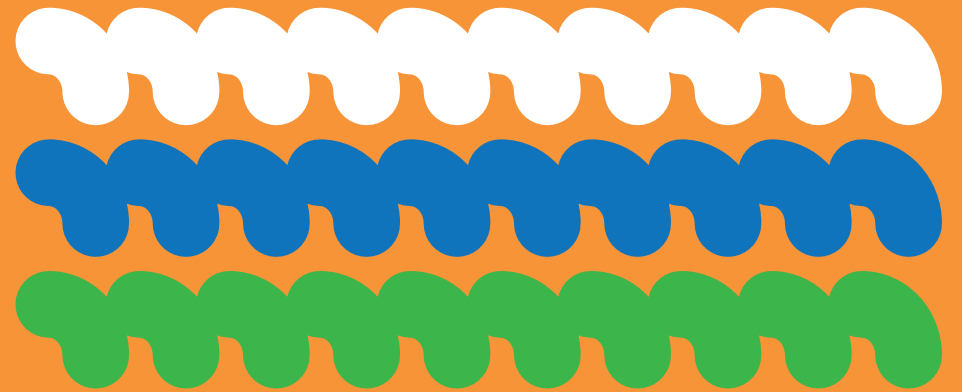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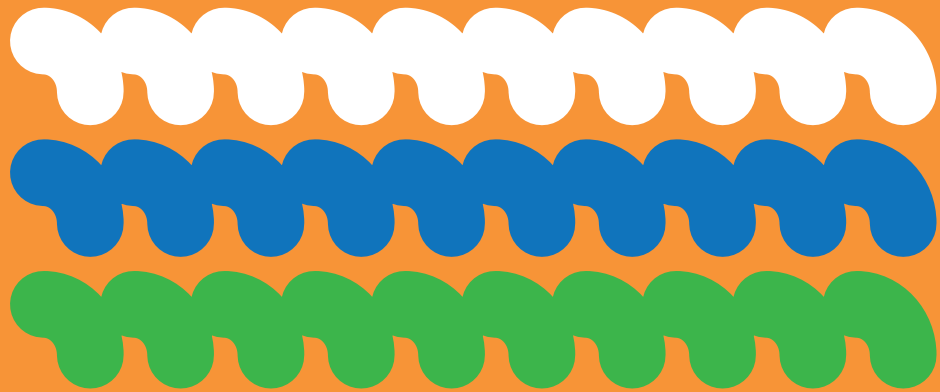
아침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프로젝트	020
[리뷰] 주민 자율의 생태예술마을을 찾다	030
기억거점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사리포구, 사리역>	034
[리뷰] 사동 마을 박물관 1°C를 만나다	044
역사거점 <독수리바위 마을 사람들>	048
[리뷰] 천년 역사 위, 온새미로의 일상에 주목하다	056
에코_C 프로젝트	060

심장

‘안산:땅과 시간의 이야기’ 공유전시	070
전시회 이모저모	074

만남
만남



2023 경기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eco museum)은 자연, 생태, 인간은 물론 산업까지 포함하여 문화유산으로 범위로 정하고, 정해진 유산의 지속성을 위해서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민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역동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에코뮤지엄은 '유산', '참여', '활동'으로 구성되어, 각각을 해석하고 상호 연결하는 것이 에코뮤지엄의 기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유산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해석한 유산을 콘텐츠로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와 활동을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주민, 기획자, 예술가, 전문가들의 상호 결합해서 지역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부터 삶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문화적 관계까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찾고 만드는 방식이자,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뮤지엄」, 김성균, 오수길

'경기에코뮤지엄'은 문화, 역사, 생태를 중심으로 하여 자연 유산의 보존과 활용, 거점 구축과 자원 연결, 지역 정체성 확립, 활동 주체 발굴,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만에 집중했고 2021년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는 2016년 경기에코뮤지엄의 시작부터 함께 했습니다. 대부도의 '구.대부면사무소'를 거점 센터로 구축했고 내륙으로 확장하여 사동과 안산동의 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각 거점의 문화예술을 결합하여 땅과 시간의 이야기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거점 공간과 단체의 아카이브, 인

력 양성, 역사 연구의 특징점을 가지며 '안산' 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축적 중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에코_C 프로젝트>를 시도했습니다. 에코_C 프로젝트는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가 축적한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여 활용하고, 거점을 지키는 주민 커뮤니티의 상호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안으로는 주민 커뮤니티의 경험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복돋우고, 단단한 성장을 확인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밖으로는 안산 에코뮤지엄이 관통하는 고유의 정체성을 밝히고, 대중성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안산시민들에게 에코뮤지엄을 쉽고 의미있게 전달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에코뮤지엄 또는 유사 프로젝트의 참여 경험이 있는 작가를 인터뷰어로 주민 커뮤니티와 연결하여 지역의 특징을 담은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아서 2023년 11월,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공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에코뮤지엄 커뮤니티(eco museum community)의 약자이자, 주민, 활동공간, 거점 공간을 안산 에코뮤지엄의 씨앗으로 표현한 <에코_C 프로젝트>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 그 나무 그늘에서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안산:땅과 시간의 이야기’ 걸어온 길

2016

어린이 예술 놀이터
에코아트

2017

바람과 춤추는 물고기
탄도 있다_2017
섬에 사는 남자, 섬에 사는 여자

2018

탄도 있다_2018
히든아일랜드 투어
누에섬 소풍
바람 더하기
누에섬 톨
누에섬 연구조사

2019

종어제 공연
거리예술공연
설치미술프로젝트 ‘히든아일랜드’
에코뮤지엄 투어 프로그램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안테나 새’

2021

에코시민학교 ‘바탕지기’
히든아일랜드
종어제 공연
거리예술프로그램
에코투어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에코뮤지엄 연구용역

2022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_ 지역활동가 양성, 대부도 거점 기획전시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_ 마을에리어(상동), 기억에리어(사리포구), 역사에리어(안산동)

하나로 연결하기 <이음> 프로젝트

_ 에코뮤지엄 컬렉션(거점공간, 지역유산 소개 지도)

2023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_ 활동가 양성교육, 삼삼오오 지원사업, 1기 활동가 시범사업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_ 기억거점(사리역·사리포구 아카이브, 북토크)
_ 역사거점(독수리 마을 해설사 양성, 청소년 크리에이터, 구술 아카이빙)

<에코_C> 프로젝트
_ 에코뮤지엄 전문가 매칭, 거점 간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 아카이브

사동



거점공간_1°C

안산시 동남쪽에 위치한 사동에 자리잡은 '1°C(1도씨)'는 주인이 따로 없는 누구나 주인인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청소년 열정공간 99°C(99도씨)와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100°C를 만드는 사람과 이야기가 모이고 공감의 연대가 흐르는 곳이다.

사동지역사모임

성황이었던 사리포구의 뱃길이 끊기고,
우리의 발이었던 수인선마저 폐지된 그 시절.
빛 바랜 사진, 낡은 침묵, 아련한 목소리
지금은 오래되고 낡은 것, 그곳에 머문 사람들의 이야기

도시 개발로 사라진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미 사라진 것,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예의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사동지역사모임은 2014년부터 아이들에게 안산과 마을의 역사를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 '사동별책부록'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두번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안산동(수암동)



거점공간_들락날락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조성된 마을 커뮤니티 공간 '들락날락'. 주민들의 솜짓돈과 직접 제작한 가구, 활동 결과물 등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다. 마을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가를 양성하고 모임을 만들어 가는 근간이다.

온새미로

'안산'으로 불린 지 천년이 훌쩍 넘었듯이, 이름에서도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안산동.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와 자연이 있는 우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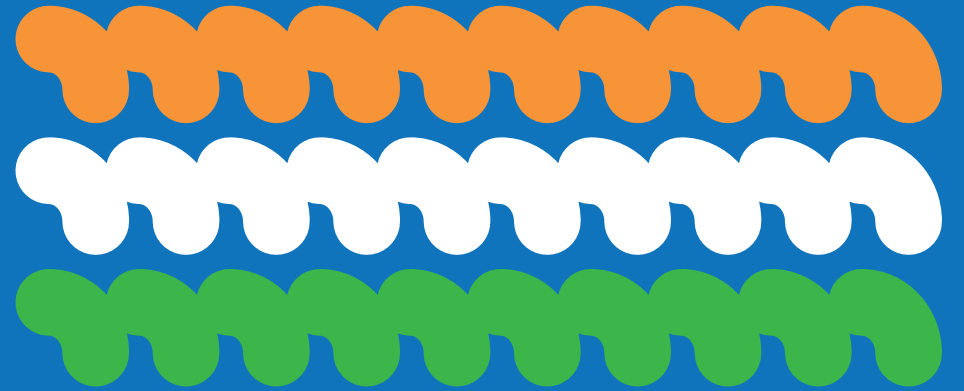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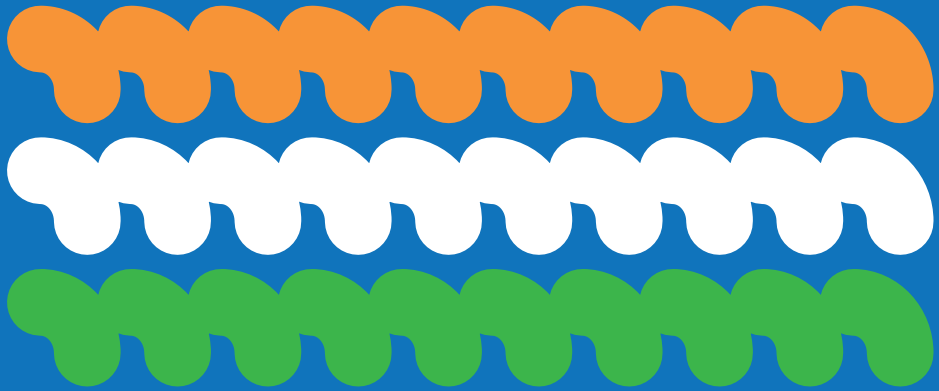
외부에서 중요한 곳이라고 들썩여도,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일상을 사는 동네일 뿐이다.

마을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된 나무가 자기의 시간을 채워오며 시간의 흔적을 몸에 남겼듯, 나무의 시간 속에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나무가 있듯. 우리들의 땅과 시간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억되길.



온새미로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려면 마을의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진 안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엄마들이 2016년 창립했습니다.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온새미로의 의미처럼, 마을 아이들이 안산동의 역사 교육과 생태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프로젝트

인터뷰이 강정미



🌸 활동 단체와 본인 소개?

저희 단체명은 대부분 고랫뿌리섬 생태관광 마을협동조합이에요. 이름 그대로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마을 기업이기도 해요. 고랫뿌리 섬이 람사르 습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소중한 자연과 바다를 잘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기보다는 생태관광이나 문화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관련 활동을 하자고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정미라고 하고, 이미 20년 전부터 관련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었던 터라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 올해 어떤 활동을?

저희는 활동의 주목적이 에코뮤지엄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활동가 양성이예요. 그래서 크게 3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기 큰섬뿌리 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삼삼오오 지원사업과 1기 큰섬뿌리 활동가 연계 지원사업으로 주민 활동가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관련 활동이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젝트예요.



❁ 큰섬뿌리 활동가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코뮤지엄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활동가를 말해요. 작년에 시작해서 1기 활동가를 배출했는데 그들이 하는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 활동도 있고 예술 활동도 있고. 하지만 저희 큰섬뿌리 활동가들은 대부도 안에서 에코뮤지엄을 잘 기획해내고 이것들과 관련된 콘텐츠도 개발해 실제로 운영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대부도에 있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표현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말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 큰섬뿌리 활동가를 양성하게 된 계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로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제 경험치에 의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것들이 쌓여져서 나온 결과물들이 되게 소중

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타지역에서 좋은 일하러 오시는 분들 에게는 물론 많이 배워야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 활동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주민활동가들의 역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양성과정을 기획하게 된 거지요.

❁ 어떤 과정을 거쳐 큰섬뿌리 활동가가 되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과정에서는 에코뮤지엄이 무엇인지, 에코미즘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대부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니까 대부도의 자연이나 관련 현장 이야기, 또 대부도의 미래까지 그려보니 그런 것들이 기본과정에 포함 되어 있지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요. 실제 에코뮤지엄을 한 10년 정도 해서 성장했던 그런 사례들이나 현장을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직접 자원 조사도 하고 프로젝트 기획도 해보게 하죠. 영상이나 방송 같은 걸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촬영 기술이나 테크닉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획했던 것을 실제로 해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삼삼오오 프로젝트예요. 참여자들이 큰섬뿌리 활동가로서 역할과 관련 활동을 직접 해보게 하는 거죠.

❁ 삼삼오오와 1기 활동가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설명한다면?

아까 활동가 양성 기본과 심화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자원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대부도에는 100개, 200개 이상의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자연과 문화자원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할 순 없어서 우선 역사 문헌에 고증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설화여서 꾸며도 되긴 하지만 옛 지명이나 지도 그런 것들은 고증이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우선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역사 문헌에 고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안산지역사연구소 정진각 교수님이 검토도 해 주시고 조사, 기획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

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 예술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서 콘텐츠나 활동으로 연결시킬까를 고민하죠. 에코 뮤지엄 활동을 책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여하튼 누군가 자꾸 발길을 달아주고 봐주고 시선을 해주고 그래야지 살아 있는 에코뮤지엄 활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기획, 운영 프로그램을 해본 거지요.

삼삼오오는 크게 세 팀으로 나뉘서 진행되었어요. 대송습지, 대부광산, 고래뿌리, 람사르 습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참여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곳을 다 투어하는데, 대송습지는 철새를 탐조한다던가 하고 대부광산에서는 대부광산의 지질이나 예술적 활동과 관련된 일을 했고 고래뿌리에서는 소금이라든가 람사르 습지 관련해서 염생식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삼삼오오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욱 많은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1기 활동가 연계 프로젝트는 작년에 수료하신 1기 분들 중에 로컬푸드나 염생식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그쪽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염생식물을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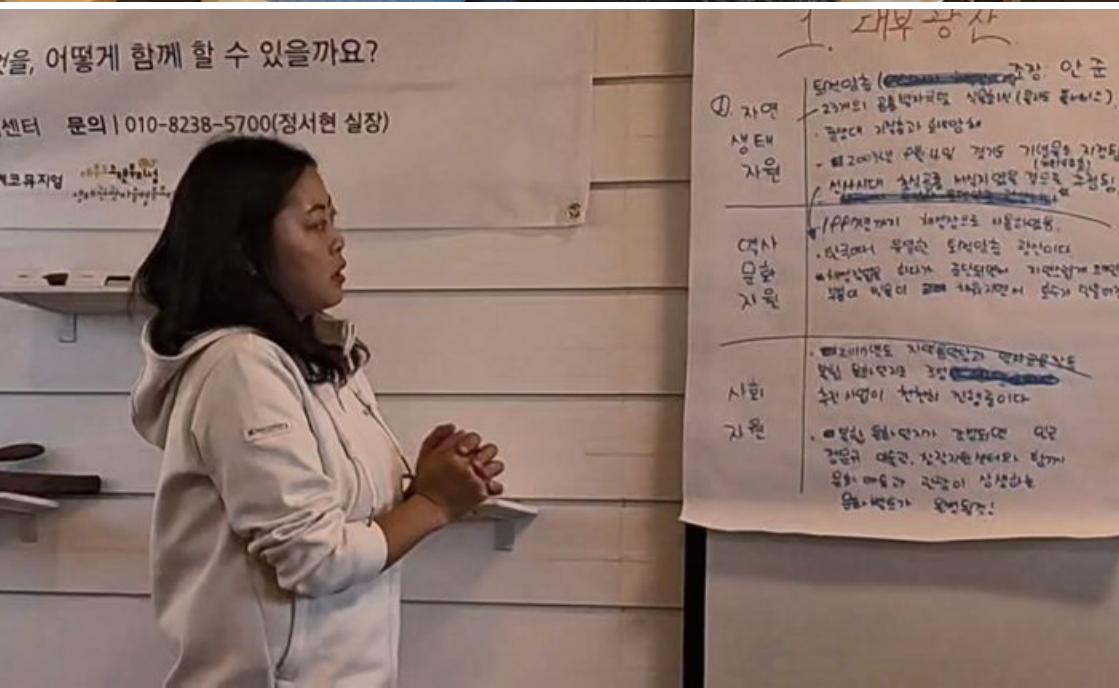
한 로컬푸드를 8가지 정도 개발했는데 함초강정, 해당화강정, 함초떡, 해당화떡, 포도떡 그런 것들이 있고 해당화 샐러드, 함초 샐러드 그런 것도 만들었지요. 원래는 이거는 1기 연구모임에서 1기들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1기와 2기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함께 해야 잘 전수가 될 것 같고 서로 교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 지도라고 해서 한 200가지가 수록된 이야기 지도가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콘텐츠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9개 정도가 그나마 검증이 된 것들인데 우선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같이 그림책으로 만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에 살면서도 대부분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다가가야겠다 싶어서 그림책으로 엮어봤죠. 9개 이야기 중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소재가 마고할멈 이야기인데 대부분에 마고 할멈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을 모셔서 그림책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과정들을 배우고 직접 그림책으로 만든 거죠.





🌸 큰섬뿌리 활동가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1기 활동가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에코뮤지엄의 활동가가 되겠다는 동기보다는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연령대도 높았고 대부분 에코뮤지엄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게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겨울 내내 연구모임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7~8명 정도 돼요. 처음 모집된 인원에 한 40% 남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번 2기 활동가분들은 20대도 있고 전반적으로 연령대도 낮아지고 활동가를 할 거란 의지도 뚜렷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잘 활동하면서 내 작은 직업으로 만들겠다는 분들도 계시어서 목표 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 큰섬뿌리 활동가 양성과정을 기획할 때만 해도 과연 이게 대부분에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여하튼 1기분들이 비록 뚜렷한 의지 없이 시작하셨지만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신 것 같아요. 올해 2기들은 모집할 때 홍보를 많이 다녔어요. 각 마을 리더들도 만나고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28명 정도가 모였는데 아무래도 과정이 길다 보니 점점 인원이 줄어들긴 하더라도요. 심화과정까지 하신 분들이 대략 15명 정도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좀더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2기분들 의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구체적 활동에 대한 계획도 남다른 면이 있으세요. 각자 만들고 싶어하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함께 만들어도 각자 역할을 나누더라고요. 공예를 잘하는 사람, 영상을 잘 다루는 사람 등등 자기 특징과 장단점을 살려서 말이죠.



🌸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에코뮤지엄이라고 해서 하는 모든 활동과 거점 공간들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다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무척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할까요. 사실 1년 내내 정규수업이 있는 월요일은 무조건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 활동을 하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야 여기서 나오는 콘텐츠나 모든 것들에 행복이 담길 거라고 생각해서 월요일 날 정성을 다 했어요. 월요일 오전에는 우리 무조건 행복하자. 월요일날 여기 오는데 막 설레어서 오자. 이걸 목표로 해서 차를 하나 쥐도 정말 찻잔에다가 정성껏 드리고 부침개



를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니까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작년 활동가 양성과정과 올해 과정이 내용적으로 자세히 보면 많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선에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더 나은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1기 활동가분들과 2기 활동가분들은 합치면 함께 할 수 있는 인원도 꽤 되어서 이분들하고 이제 교육생과 운영진이 아닌 함께 하는 활동가 동지라는 인식하에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큰섬뿌리 활동가는 계속 더 양성되어야 한다는 데에 변함이 없어요. 이 큰 대부도에 이제 겨우 20명이 안되는 활동가가 생긴 거니까요. 다만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1, 2기 분들의 도움과 아이디어를 받아서 양성의 방법을 다르게 해볼 생각이예요. 강사님들의 좋은 강연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롭고 직접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희 연구 모임에서 먼저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이전 검색하면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영상이 나오는 시대라서 저희도 대부도 에코방송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활동가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할 수 있게끔 교육도 마쳤으니 이걸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해요. 에코 뮤지엄하고 관련된 활동이나 생태나 대부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생각이예요.

[리뷰]

주민 자원의 생태예술마을을 찾다

스페이스빔 민운기



#전해자원대부도#무엇보다사람
#큰섬뿌리활동가양성교육#주민참여#지속순환

대부도와 에코뮤지엄

경기도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안산에서도 더 아래쪽에 있는 대부도는 “100km에 이르는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낙지섬, 풍력발전기와 등대와 석양의 어우러짐이 아름다운 누에섬, 노을 풍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봉도 등 섬과 관련한 관광자원이 즐비”한 곳이다.

그중의 하나인 <대부도고랫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은 “대부도 고랫부리마을의 생태 환경과 역사적 삶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주민공동체로, 지난 2016년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이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주민 자원의 생태관광 예술마을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

<대부도 에코뮤지엄(거점)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구 대부면사무소>가 아카이브와 주민 교육의 장 등으로, 고랫부리섬 생태관광마을은 구체적인 주민 활동과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올해 에코뮤지엄 사업은 지난해에 이은 ‘큰섬뿌리’ 주민 활동가 2기 양성과정으로, <대부주민자치회>, <상록수도시농어촌협동조합>, <눈빛나눔디자인>, <몽땅맑은 생태환경학교>, <ESG실천학교> 등과의 협업 구조 속에 상동, 행남동, 선감도, 영전, 종현마을, 흘곶마을, 탄도 등 기존 에코뮤지엄 선정지와 향후 추가 발굴지역으로 염두에 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사람’이 특히 더 중요한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소는 유산Heritage과 주민참여Participation, 활동Museum으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주민(내지는 지역공동체)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문가 및 행정과 결합하여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즉 에코뮤지엄은 외부의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활동에 나설 때 의미가 있고 살아 있으며 지속가능하다. 이러한 활동 자체 및 그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 모두가 에코뮤지엄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부분도는 에코뮤지엄 활동과 사업에 있어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다가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이 이어져 왔고, 현재에도 ‘따로 또 같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지원사업을 통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도 ‘사람’이 아니었나 싶다. 사실 주민 입장에서 각자의 생활 또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주변은 물론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의 터전이 지닌 의미와 가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는 가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주체들의 사고와 욕망에 의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생활 환경을 지닌 분들이 좀 더 크게, 멀리 내다보며 자신이 삶터와 일터를 새롭게 파악하고 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의미한 활동을 함께 상의하고 벌여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범위도 넓고 여러 마을로 분산되어 있어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뜻한 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다른 사고와 감각으로 각자가 감당 가능한 생활권역에서 실천적인 면을 보여줄 필요가 다른 곳보다도 높다고 보아진다. 그러한 활동들이 쌓이고 모아져 에코뮤지엄 대부분도를 더욱 모범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주민 활동가 양성 과정의 주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세 곳, 즉 <고랫부리(람사르)습지>와 <대송습지>, <대부광산 퇴적암층> 자체는 생활권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접한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그 간극을 좁히고, 에코뮤지엄의 기본 개념과 활동을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 나갈 다양한 경험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출발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주민 활동가 양성교육과 고랫부리섬 생태관광마을

결국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자연 생태 자원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야 나 자신을 비롯한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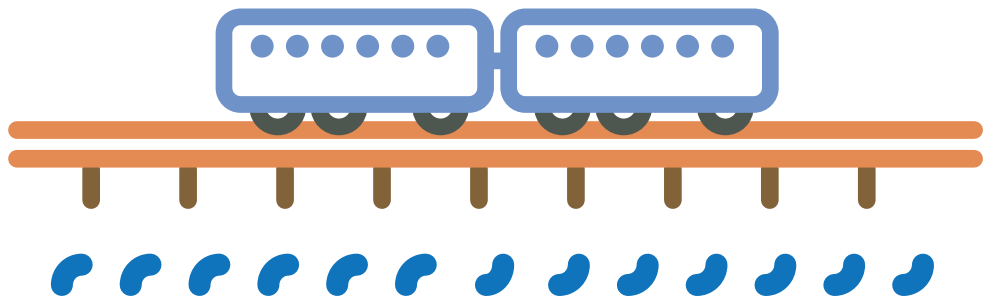
건강한 주민공동체의 존재 및 활동 여부에 따라 섬의 미래는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의식 및 생태마을에 대한 확보한 철학과 원칙을 지닌 소유자들의 존재와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너무나 절실하고 많을수록 좋다. 섬은

예상대로 적지않은 규모인데다가 자연과 인공, 오래된 것과 새것, 보존과 개발의 장면과 요소들이 뒤섞여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에코뮤지엄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매력을 느꼈다. 여기에 주민 활동가 양성 교육이라는 필요조건이 있었다.

인천에서 건너온 시화방조제를 다시 건너가며 멋진 에코뮤지엄을 만들기 위한 이곳 주민들의 진정어린 활동에 응원을 보낸다.

기억거점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사리포구, 사리역>

인터뷰이 김부일



사동지역사모임은?

사동지역사모임은 2014년에 지역사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안산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신대광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역사 수업을 받게 되었죠. 학창시절에 배웠던 중앙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다란 걸 알게 되었죠. 지역사가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국가의 역사보다 많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매우 놀라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동네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굉장히 설레면서 배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산동이나 반월동을 부러워했어요. 거기에는 향교도 있고 객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기와장 하나, 동네 동산 하나 하나가 다 유적지, 유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사동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유물이나 대단한 장소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했죠. 또 저희가 배우면서 깨닫게 된 거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역사를 만들고 짚어지고 가는 게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사동에서도 무언갈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99도씨나 1도씨 공간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 현재 단체 구성원과 역할은?

저희 단체 구성원들은 대개 주부들이예요.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 빼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6명 정도 돼요.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죠. 세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역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분은 그야말로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분이세요. 저희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아카이빙 결과물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역할을 맡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의 활동 과정과 기록을 영상 다큐나 글로 담아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저희가 활동하는 거점공간이 99도씨말고도 1도씨도 있는데 그곳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모임 때마다 진행도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사동지역사 아카이빙 작업할 때 섭외, 인터뷰, 녹취 등은 공동의 역할이고 이걸 책자로 만드는 편집작업 같은 걸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대표 역할을 맡고 저희 아카이빙 작업물을 책자로 만드는 편집작업과 함께 안산 에코뮤지엄 같은 지원사업을 총괄담당하고 있어요.



🌸 올해 어떤 활동을?

저희는 계속 기록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작업의 결과물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지역사회에 던져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즉 지역사회에 이걸 알리고 결과물이 됐든 활동이 됐든 조금 더 폭넓게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안산이 왜 이렇게 좀 파삭거리고 인정머리가 없는 곳이 됐나 했더니 무지막지한 도시 개발이 그 이유였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말 폭력적으로 밀어버리고 그 위에 새 것만 좋다고 하며 마구 만든 거죠. 높은 고층 아파트, 그럴싸한 건물들이 좋아 보일 수 있죠. 저도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멋진 노후를 상상해요. 하지만 그 노후에 가족말고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인가. 그럴 걸 상상해 볼 여지가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활동에서 저희가 방점을 찍은 건 뭐냐면 '땅과 기억의 시간'을 기록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었어요. 작년에 사리포구에 관한 아카이빙 작업을 해서 소책자로 엮었고 올해는 수인선 사리역 관련 아카이빙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걸 어떻게 지역에 알릴 것인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활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단체 구성원들 간에 많은 이



야기를 나눴어요. 갈등도 좀 있었지만 결국 의견이 모아져서 북토크랑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었고, 마을 학교에서 저희 도서를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교사 교육 활동을 했죠.

🌸 활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선 북토크는 지난 10월에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사리포구 관련 아카이빙 책자를 만들었는데 저희들끼리만 알지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걸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안산시평생학습원의 공간을 빌려서 주민들과 관련해 협조해 주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말 그대로 북콘서트를 한거죠. 막상 행사라는 걸 하러니 준비할 것도 많고 손은 부족하고 여하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막상 열고보니 주민들 반응이 매우 열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 11월에 올해 작업한 수인선 사리역 관련 아카이빙 책자의 출판기념회를 해요. 두 책자 다 독립 출판 형식으로 출간한 진짜 안산 지역사 도서인 거죠. 특히 올해 아카이빙 작업은 정말 많이 힘들게 진행됐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출판기념회를 딱 이제 끝났다 라는 후련한 마음보다

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온 소중한 저희의 자식과도 같은 이 도서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키워보자 그런 마음인 거죠. 요즘은 같이 활동하는 분들과 시간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출판기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것들이 그냥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밭 밟고 사는 이 안산 땅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까. 같은 생각을 하는 지역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분들과 계속 논의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재화 작업은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역사 고향을 만들어준다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했고 그래서 사리포구, 사리역 도서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우리 지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학교 교사들과 연결해서 아이들의 지역사 교재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마을 교사를 하시는 석호초 학부모 교사분들에게 저희 도서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도 하고 역사교육도 시켜드렸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고려인 아이들이 많은데 안산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낱장 형태로 사리포구 관련 수업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수업도 하게 했어요. 이밖에도 안산에 있는 단원FM 방송국에 출연해서 저희 활동을 알리기도 하고 출간한 도서를 주제로 마을살롱이라는 독서회, 낭독회도 열고, 다큐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는 아카이브 활동은 그대로 하되 활동의 영역과 범위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 거죠.

🌸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사실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동. 그냥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동을 그냥 사는 곳이 아닌 고향으로 만들어주어야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활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사동 실록'이라는 어마무시한 제목으로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을 한 거예요. 진짜 뭘 모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싶어 기억나구요. 아카이빙 작업을 시작하면서 양주 최씨 집성촌을 이뤘던 분들이나 통장님들, 지역 어르신들을 만났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만나기 전에는 그분들에 대해 약간의 선입견 같은 것도 있었고 끈대스럽고 대화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만나보니 오히려 매우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확 깨지고 지금은 되게 가까워져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저희 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요.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희에게 남는 건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특히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서 그걸 계속 발견하게 돼요. 이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흘리지 않고 잘 붙잡아서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하는 과정에서 보니 도시 개발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너무나 쉽게 사라진 안산의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 우리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볼 걸 해보자. 그리고 그 생각들을 다시 기록하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끼리 우리는 '마을 기록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찍은 다크에도 나오는 건데 예전 사리역에 협궤열차가 있었잖아요, 몇 칸이 안 달린 미니, 꼬마열차인데 그게 운행하던 시절에 수인선 사리역 주변에 살던 마을 분들 이야기예요. 그 시절 협궤열차며 사리역이 어땠고 등등 그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까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안산이 무지막지한 도시 개발로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안산 땅을 이렇게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신들의 고향은 사라지고 없다고. 그래서 저는 좀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전의 안산을 아련하게 그리워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40~50대 나이의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나이가 먹을수록 예전 안산, 고향이라고 하면 그리운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고요. 인터뷰했던 분 중에 사리역 옆에서 카센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형제분하고 쌍둥이셔서 헛갈려 실수할 뻔했던 일도 떠오르네요. 저희들이 사리역에 관한 전시회를 했을 때 그분이 참석도 해주시고 했는데... 여하튼 그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안산의 산과 바다와 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회상하시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어른들 인터뷰했을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 안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다고. 노을도 무척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큰 고층 아파트에 가려져서 이제는 그때의 노을풍경을 감상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사리역에 석탄 열차가 지나가게 하려고 금정역처럼 높은 담을 쌓아서 사동과 본오동 사이를 막으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탄열차가 지나가면 아무래도 석탄가루가 많이 날리니까요. 그럴

게 열차가 지나가고 그것 때문에 높은 담장을 쌓으면 자연도 훼손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지역에 살고 계시던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반대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막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차가 지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곳은 지금도 저희 사동 주민들이 자주 가는 곳인데 이 공간이 20년 전 누군가의 그런 노력과 애씀, 애정으로 지켜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구나 싶었죠. 저희들은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녹지 공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언젠가 미래의 그 누군가에게 행복한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 관련 굿즈를 만들게 된 계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카이빙 작업으로 인해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분들하고 인연을 많이 맺게 되었어요. 그중에 김용호 화백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도시 개발로 이제 아무도 없는 사리 공소, 말하자면 성당의 분소 같은 곳에서 기거하면서 어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셨던 거예요. 그 시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아름다운 사리포구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 모습들은 다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을 남기신 거지요. 때론 영상으로 찍기도 하시고. 그래서 당시의 사리포구 모습이 생생히 살아 있는 그림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문화자원인거죠. 그걸 그림으로만 두는 게 아깝고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보았으면 싶어서 이번에 그걸로 엽서랑 손수건 굿즈를 만든 거예요. 물론 김화백님의 허락을 받았죠. 이분은 저작권 이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전에 말씀만 잘 드리면 뭐든지 오케이하세요. 사리포구 책자에 본인의 그림을 쓰는 것도 그냥 허락하시고. 덕분에 저희가 무척 귀한 자료도 얻고 이걸 활용하는 활동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성우 못지 않게 목소리가 좋으셔서 사리포구 도서 낭독회에서 낭독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저희로서는 이런 분들이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귀하죠.

🌸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기록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꾸



존히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 활동하는 공간 99도씨랑 1도씨가 마을 박물관으로 손색없는 날이 올 때까지, 아니 그런 날들이 와도 계속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에 난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역사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싶고 저희 공간이 마을박물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려면 관련 기록들과 자원들이 풍부해야 하니까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마을 도슨트 교육도 더 심화해서 해야 하고... 할 일이 되게 많죠. 특히 내년에는 독서 유랑단이라는 걸 꼭 해 볼 생각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든 책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돼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책 홍보 겸 지역사 교육도 하고 저희 활동에 대해 알리는 작업도 할 건데 그걸 독서유랑단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안산동 사시는 어떤 선생님이 자기 동네에 서정시대라는 카페가 있고 거기에서 책모임을 한다고 저희도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교류를 좀 해보려고요. 원하던 원하지 않든 동네마다 문 두드려보고 직접 부딪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가치 있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뷰]

사동 마을 박물관 1°C를 만나다

시각예술가 임은빈



#소소한듯 #집요한 #기록
#안산역사 #마을박물관

청소년열정공간 99°C + 사동 지역사 모임 1°C

사동지역사모임은 안산 사동의 마을공동체로 2014년부터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오고 있다. 청소년열정공간 99°C로 시작했고 지금은 사동지역사모임의 거점공간인 1°C를 더해서 두 공간을 나란히 두고 있다. 모임의 기록들로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사동별책부록><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를 발간했다. 마을공동체 10년의 역사와 집요한 아카이빙을 보고 나니 이곳을 '사동 마을박물관'이라 칭해야 할 것 같다. 1°C의 공간 자체가 이미 박물관이지만 기록집 한 권 한 권이 커다랗고 촘촘한 역사박물관이다.

아이들은 청소년열정공간 99°C에 모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함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한다. 단단한 거점공간도 힘이 되지만,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내가 디딘 공간의 이전의 이전을 궁금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설 자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었다. 99°C와 1°C는 지역과 역사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삶의 온도를 지속하고 있다.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사리포구는 1950년대 이북 실향민들의 이주 촌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부지런하기만 하면 다 성공했던 풍요로운 바닷가마을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지나가는 개도 천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 1980년대 사리포구에 방문하는 하루 인구가 25만에서 30만이었다. 하지만 1987년부터 시화방조제 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바닷물이 막히면서 여촌계와 고깃배가 사라지고 1999년 사리포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사동지역사모임은 이러한 개발 도시의 과정 안에서 사라져 버린 마을의 역사, 즉 사리포구와 수인선, 사리역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의 사동 사람들과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이미 사라진 것,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예의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록하고 사라진 것에 대한 가치를 알리려 질문하고 기억할 것이다.'라고...

사동 마을 박물관 1°C와 함께 안산 에코뮤지엄

마을 박물관 1°C의 기록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지하고 소수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사람보다 먼저인 부조리한 행정절차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반복되는 과거의 이력들도 되짚는다. 그리고 '마을역사 아카이빙'과 '기록집'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사유와 성찰 없는 사회에 대해 따뜻하지만 뾰족한 질문을 던지며, 기획된 도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삶의 다양성을 위해 '공동체 회복'의 의미를 강조한다. 사적인 역사의 오랜 기록들이 궁금하고 반가운 이유다. 지금은 '수인선 사리역'에 관한 새로운 책을 편집하고 있다. 수인선이 다닌 길목, 협궤열차에 관한 에피소드, 공간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의 이야기들로 또 하나의 박물관이 생기는 것이다.

덜 깨끗하고 덜 조용하고 덜 효율적인 도시

고향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뿔뿔히 흩어지고 희미해져갔다. 하나의 마을이 사라질 때 볼 수 없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시간의 흔적들, 일터에서의 표정들, 찰나의 기억들, 삶을 이어가던 이야기들. 다시 생각하고 질문해야 할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사동지역사모임은 보이지 않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켜내지 못했던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빠르게 변하는 개발도시의 뻘뻘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지금의 도시는 지나치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도시개발을 하는가. 도시에 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김부일 선생님은 답한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도시기를 바라죠. 자연과 친구와 골방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마을 곳곳이 자연 놀이터였으면 해요. 속도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되고 낡은 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고 보존하고 기록해야 할 장소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시였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이 있고 ‘틈’이 존재했으면 해요.”

역사거점

<독수리바위 마을 사람들>

인터뷰이 우정연



🌸 온새미로와 본인 소개?

온새미로는 안산동의 훌륭한 역사와 생태 자원 속에서 마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 저는 그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정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안산동의 역사와 생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올해 어떤 활동을?

크게 두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청소년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어른분들이 들려주는 마을의 옛 이야기를 기록하는 구술 아카이빙 작업이에요. 우선 청소년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은 원래는 청소년 마을 해설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안산동에는 소중한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마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고 나아가 직접 그들이 마을 역사나 문화들을 전파하는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꾸려서 해보자 했고 안산 에코뮤지엄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너무 욕심이 앞서 있었던 걸 깨닫게 됐어요.

🌸 어떤 사연이?

온새미로 네이버밴드가 있어요. 일종의 마을 밴드로 매우 많은 지역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거기에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모집한다는 홍보를 했어요. 예상하기로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업 때문이겠죠. 그래서 신청자가 모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직접 찾아 보자 해서 안산중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상에 노출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해설 방식으로 마을의 옛이야기,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어찌어찌해서 초2~6학년까지 한 8명 정도 아이들이 모집됐는데 이 아이들도 그 방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진짜 하고 싶었던 활동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봤죠.



그래도 우선은 마을의 역사를 저희가 알려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산 객사, 향교, 안산초등학교 등등 마을의 보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시큰둥해하며 저희들끼리 장난만 치던 애들이 점점 다르게 마을을 보면서 스스로 마을의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마을의 모습을 어떤 형식으로든 담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마을 지도를 그려보자고 하고, 우리 마을에서 자랑하고 싶은 명소를 스스로 골라서 거기서 댄스 챌린지 영상도 찍어보자고 하고 그런 활동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다양하고 색다른 마을 지도를 보고 있자니 그냥 두기가 아깝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을의 보물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도들을 디지털변환을 해서 아카이빙해 갖고 싶어서 그 작업을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들만의 시선으로 찾은 마을의 보물은?

저희 어른들은 문화재 같은 것들, 즉 향교나 보호수 같은 것들만 마을의 역사자원이라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크게 의미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놀이터를 얘기하더라고요.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안산동에는 청소년들이 가서 놀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요. 그 흔한 스터디카페도 없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서 놀이터에 가게 되면 주민들이나 주변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유아나 초등생들이 노는 곳에 왜 너희들이 있냐부터 해서 뭐 나쁜 짓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까지... 그러니까 점점 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동의 놀이터라는 공간을 좀 새롭게 조성해 봐야겠다 싶었죠. 우선 놀이터 실태 조사를 했더니 정말 나쁜 짓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모인다는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곳을 일명 양아치 놀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전하게 아이들이 지내고 놀 수 있게 바꿔보자. 그래서 우선 마을 주민들한테 놀이터 이름 공모를 했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이름이 해가 짹하고 먼저 뜨는 곳이라 해서 '해짹 놀이터', 달이 제일 잘 보인다고 해서 '달속 놀이터'예요. 그렇게 놀이터들을 마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저희한테도 좀 특별한 장소이긴 했지만 마을의 보물을 물어보았을 때 거기를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곳이 특별한 마을의 명소, 보물이라고 생각이 됐나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골목들이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 골목이 제일 예뻐요. 이 골목에서 보면 취암봉이 보이고요. 저 골목에서도 취암봉이 다 보여요. 우리 동네는 어느 골목에 가도 취암봉이 다 보여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골목들이 마을의 보물이라고. 정말 우리의 시선과 아이들의 시선은 다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 아이들과 함께 마을의 문화, 역사자원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는?

함께 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마을의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시선으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해낸다면 그것들이 쌓여서 또 하나의 마을 보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저희가 처음에 상상했던 청소년



년 마을 해설사가 이 아이들 중에 진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겼어요.

🌸 **어르신들의 구술 아카이빙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온세미로를 2016년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학부모회에서 활동했었던 엄마들이 주축이었고 주로 안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 국한해서 활동을 했지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만 보지 말고 마을로 나와서 마을 전체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을 모두 품어보자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태 위주의 활동을 시작했는데 생태를 알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의 역사랑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마을의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자 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마을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안산동 옛이야기를 많이 알게 됐어요. 마을 위원으로 계시는 또 다른 선생님도 마을에 대한 역사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자료를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부가 계속 될수록 함께 들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어쩐지 그냥 휘발되어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에게 마을 역사를 알려주셨던 분들도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것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기록 작업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시작하게 됐던 거죠.

🌸 **구술 아카이빙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마을의 주민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걸 텍스트로 풀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녹취하고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어요. 소개받고 찾아가면 어르신이 다시 다른 어르신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 릴레이 식으로 진행했었죠.

🌸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올해에 본격적으로 아카이빙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마을의 옛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구요. 연세가 많으셔도 안산동의 옛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애써 안산동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을 만나도 이야기 진행이 어려운 거예요.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마치 저희를 민원 창구처럼 여기시며 안산동 여기를 개발해야 한다, 저기를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만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희에게 아카이빙 작업에 대한 스킬이 없어서 라는 걸 깨닫게 됐죠. 지금은 한양대에서 아카이빙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럴수록 초기에 저희가 얼마나 이쪽에 무지하게 의욕만 앞서서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어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 아카이빙 결과물은?

현재까지 인터뷰랑 이걸 텍스트화한 게 양이 좀 돼요. 지금 소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구술로 들려주신 마을의 옛이야기랑 주민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일상을 담은 글들, 청소년들이 우리 마을 안산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은 문장으로 풀어낸 것들을 엮어서 편집하려고요.

❁ 활동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마을 역사 공부도 하고 인터뷰 스킬도 배우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어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사실 아카이브 작업하면서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후회한 적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럼에도 계속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재미나고 내가 이 마을에 터 잡고 사는 것에 대해 뿌듯함도 느껴지고. 또 저희가 하는 활동이나 작업들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과의 관계맺기가 보다 넓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구요. 그동안 온새미로가 아이들 중심의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안산 에코뮤지엄 사업 지원으로 아카이빙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 단체의 활동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체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세대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안산동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진 주민들이 너무 많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모색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산동에 사시는 어르신들만 찾아서 안산동 옛이야기 구술 작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 안산동에 살고 있지 않아도 안산동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분들을 찾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작업으로 확장해보려고요. 청소년 크리에이터 과정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하고 수정해서 계속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리뷰]

천년 역사 위, 온새미로의 일상에 주목하다

여러가지연구소 민경은



#에코는삶의환경#99%아이들
#청소년크리에이터#천년역사와일상#꼬꼬무기획

에코뮤지엄은 우리네 삶의 환경

에코뮤지엄은 본래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에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Museum)’을 결합한 단어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네 삶의 환경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생태는 곧, 집과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안산동, 생활세계 내에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연결 지으며 구체적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온새미로가 수암봉이라 불리는 독수리 바위와 마을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를 가히 짐작해 볼 만하다.

자연과 99% 아이들의 삶이 온새미로하길

온새미로는 2016년부터 동네에 있는 안산초등학교 학부모단체 중 하나인 <숲속 놀이터>에서 시작해서 동네 이웃 사이로 긴밀해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어른들이 같이 된가를 도모해볼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되어 2019년에 거점공간 들락날락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모두가 쫓아가려는 상위 1%의 삶이 아닌 우리 아이들 각자의 삶이 온새미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좋은 환경과 삶의 과정을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들락날락 공간 근처에 있는 노거수(보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작가와 성인 8명이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는 <독수리 바위 마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크리에이터들과 나무를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영상 미디어를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을 초등학생 5-6학년들과 어른들의 시선이 함께 교차편집하는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좋다’라는 기준이 하나가 아닌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좋다’의 기준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한다.

천년의 역사 위 묻어있는 일상에 주목하다

더불어 온새미로는 마을 사람들 50명과 만나 이야기를 모을 계획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 중에 서정리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정자의 서쪽 지역을 말한다고 한다. 1950년대에 그려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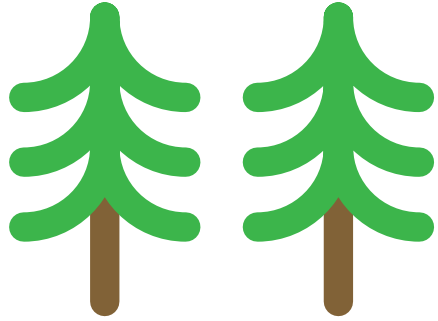
의 지도와 현재를 비교해 도시의 변화를 함께 조망해볼 수 있기에 이러한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그렇게 온새미로라는 순우리말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뜻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마을의 이야기를 모으고 동시에 지금은 방치되어 있지만 수암면사무소가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이를 잘 지켜내는 활동도 함께 꾸려내고 싶어 한다. 질문이 실천이 되고, 실천이 또 질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실천의 반복은 그 안에서 장소성을 계속해서 생성하게 될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획과 활동을 응원하며

과거의 뿌리를 발견하고, 보존하고, 실생활과 연계한 지역문화유산의 활용을 모색해나가는 온새미로는 천년의 역사 위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네 일상을 감각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획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미래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코뮤지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온새미로가 샅터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굴되는 역사, 장소의 기억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길 응원한다.

에코_C 프로젝트

인터뷰이 별일사무소 이초영



🌸 에코_C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면?

에코_C 프로젝트는 안산 에코뮤지엄의 3개 거점(대부도, 사동, 안산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민 커뮤니티(대부도고갯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사동지역사모임, 온새미로)의 네트워크 지원 프로젝트예요. 에코_C는 '에코뮤지엄 커뮤니티'의 약자이자 '에코뮤지엄의 씨앗'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았습니다. 2016년부터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안산 에코뮤지엄은 내륙으로 확장된 이후, 2022년과 2023년은 대부도, 사동, 안산동에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2023년 현재 <안산:땅과 시간의 이야기>는 각 마을의 거점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도는 '구.대부면사무소'를 안산 에코뮤지엄 거점센터로 구축하여 유산을 보전하며 널리 알리는 큰섬뿌리 마을해설사를 양성했고, 사동은 사리포구와 수인선을 중심으로 흠어지고 사라진 이야기를 아카이브하고 있고요. 안산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아름다운 유산이 남

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의 각각 활동을 안과 밖에 모두 알리자는 취지에서 에코_C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 에코_C 프로젝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에코_C 프로젝트는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가 축적한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여 활용하고 거점을 지키는 주민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는 상호활동을 지원했습니다. 7년 넘게 진행된 안산 에코뮤지엄이 관통하는 고유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널리 알리고자 대중성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는데, 거점별 주민 커뮤니티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산하는 한편, 온라인은 카드뉴스와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홍보했고, 오프라인은 공유전시회를 열고 결과자료집을 만들었죠.

특히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동시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커뮤니티와 인터뷰어를 일대일로 연계해서 매월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어로는 에코뮤지엄 또는 유사 활동의 경험이 있는 공공예술영역의 작가와 기획자를 섭외했고요. 인터뷰어와의 매월 만남을 통해 활동의 고민을



나눴고 공유전시회를 논의했죠. 또, 인터뷰어는 주민 커뮤니티가 제일 주력한 활동의 현장 탐방을 다녀온 후, 그간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리뷰 성격을 띤 한 편의 에세이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간추려 안산문화재단의 문화소식 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 매월 네트워크의 내용은?

사동, 안산동, 대부도의 거점 공간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유대감을 길렀어요. 거점별 사업 내용과 에코_C 프로젝트의 활동 내용을 공유했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프로모션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언론사 기자님을 모셔서 홍보 관점에서 바라본 에코뮤지엄, 보도자료 작성 강의를 들었고, 에코뮤지엄의 폭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 인터뷰어 중 한 분께 에코뮤지엄의 관점에서 본 인천 배다리마을의 문화자산과 활용사례를 들었습니다.

🌸 일반 시민들에게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안산 에코뮤지엄의 브랜딩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전 로고가 있었으나 에코



뮤지엄이라는 의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보다 즉자적으로 파악되는 이미지로만 이뤄져 있어서 임팩트가 적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로고 디자인은 에코뮤지엄의 정체성은 물론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담아서 간결하게 나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점과 선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Eco Museum의 약자인 'EM'을 형상화했고, '점'과 점의 연결인 '선'은 다양한 생명과 사물의 연결을 뜻하는 동시에 '땅과 시간의 이야기'라는 안산 에코뮤지엄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색상 역시 땅과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연상하게 하는 초록과 갈색으로 정했고, 로고에 사용된 점과 선은 안산 에코뮤지엄을 설명하는 일러스트에도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뉴스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쉽게 알리는데 주요점이 있었어요. 에코뮤지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길 원했는데, 디자인 역시 기존 에코뮤지엄의 뉘앙스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담으려 했습니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에게 관련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여 단체가 직접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자료집 역시, 매거진 형식으로 구성하였는데 자료 아카이브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홍보물로 쓰일 수 있도록 실험을 시도했어요. 이 결과자료집이 커뮤니티 활동에 홍보자료 또는 보조재가 되길 바랍니다.

🌸 공유전시회는 어떻게 기획되었는가?

이러한 일련 과정이 모두 담긴 전시회<2023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공유전시>가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제2관에서 열렸습니다. 세 곳의 거점에서 펼쳐진 활동 주제에 맞춰서 전시 콘셉트를 잡았는데, '대부도 바다를 닦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걸었던 옛 주민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는 큰섬뿌리 활동가까지 대부도의 삶을 목소리로



사동지역사모임이 생각하는

'안산 에코뮤지엄'은 무엇인가요?

안산 에코뮤지엄은 **사람**이다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왜 '사람'인가요?



"공간이 마련되면 사람이 모이고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새로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연결의 이야기와 기록의 소중함**을 알아가며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른은 더 어른답게, 청소년과 청년은 그런 어른을 보며 더 나은 어른을 꿈꿉니다."

사동지역사모임

▷는 사동지역사모임, 기록이라는 의미가 담긴 공간. 이는 물론 공간 위에 서있고 있는 모든 공간에 공명을 만들어 주고 있다. 사동지역사모임은 우리 마을의 이렇듯 변화되고,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 우리들에게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마을과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해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고자 한다.

문새미로가 생각하는

'안산 에코뮤지엄'은 무엇인가요?

안산 에코뮤지엄은 **안산동**이다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왜 '안산동'인가요?

"**현년의 역할**을 품은 안산동의 역사와 커다란 은행나무는 선조들의 삶과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이어 주는 살아 숨 쉬는 **공유된 문화자원이자 자랑스러운**"

문새미로

특수시 역사가 품은 마을에 위치한 문새미로 거점공간 둘러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연인원 1천 명, 1년에 문새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역사 자료, 생애 체험 활동을 통하여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자 한다.

고랫부리가 생각하는

'안산 에코뮤지엄'은 무엇인가요?

안산 에코뮤지엄은 **꽃사슴의 꿈**이다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왜 '꽃사슴의 꿈'인가요?

"대부도와 유사한 모습의 네덜란드 어느 섬에는 인간들이 넓은 **연못을 확보해서 꽃사슴들이 뛰어들**다고 합니다. 대부 습지도 **연못과 각종 식물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이 **함께 공존하는 대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랫부리

다양한 고랫부리는 문새미로 활동가를 양성 중이다. 특히 가능한 한 부디들이 공존해서 지역 에코뮤지엄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의 습지, 7000년 반전 유적문화에 관하여 문화재료를 뒷받침하는 생애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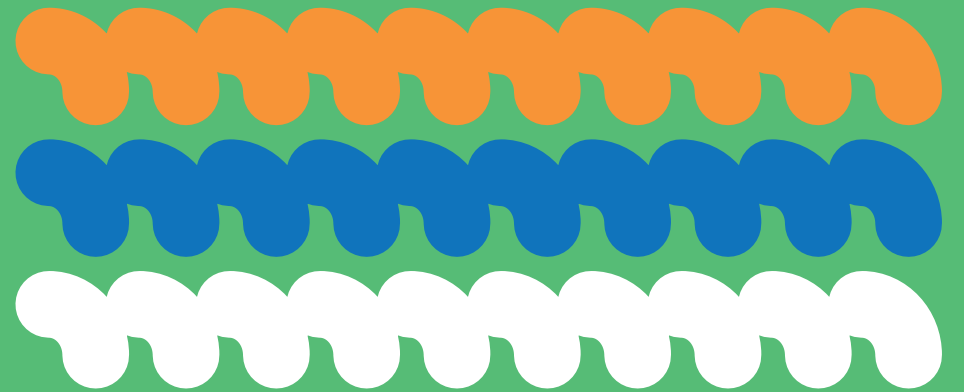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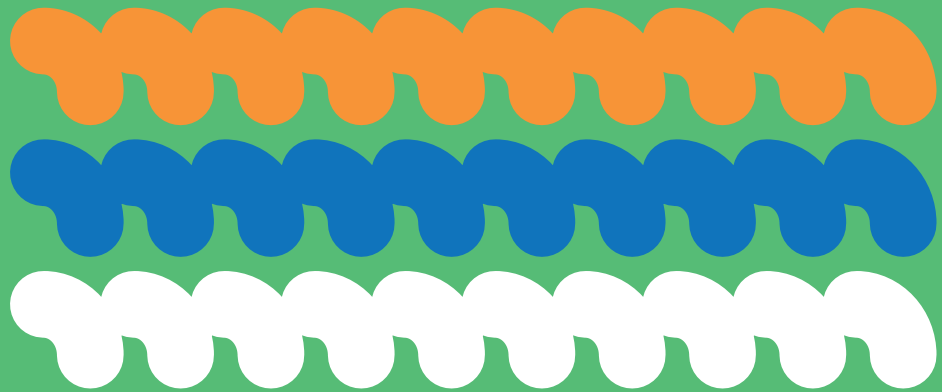
재현했고, 천연염색으로 하늘과 바다,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대부도에서 자라는 꽃으로 천을 물들였고, 실제 갯벌을 바른 도자기도 전시했죠. '안산동에서 아이들은 자란다'는 그곳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수암봉, 노거수, 객사 등의 자연 유산을 포함하여 마을 명소로 선정한 곳을 중심으로 직접 그린 그림과 사진, 지도를 전시했어요. 그리고 직접 출연해서 댄스 챌린지 쇼츠를 촬영했는데, 마을 명소를 뒷배경으로 삼아 간접적으로 노출했다고 해요.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는 사리포구와 수인선 협궤열차의 기억을 가진 주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사라지는 소중한 것을 담으려 하셨습니다. 실제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녔던 침목, 1도씨 마을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유물들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올해 에코_C 프로젝트 활동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아울러 내년 계획은?

올해 에코_C 프로젝트는 '연결'에 주목했어요. 처음으로 각 거점 공간에 서로를 초청하고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내년 에코_C 프로젝트는 거점별 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해당 주민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류를 다지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안산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아끼며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며 여러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성장 영양



2023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공유전시

10:00 - 17:00 / 무료관람

안산문화재단 시민속계부 031-481-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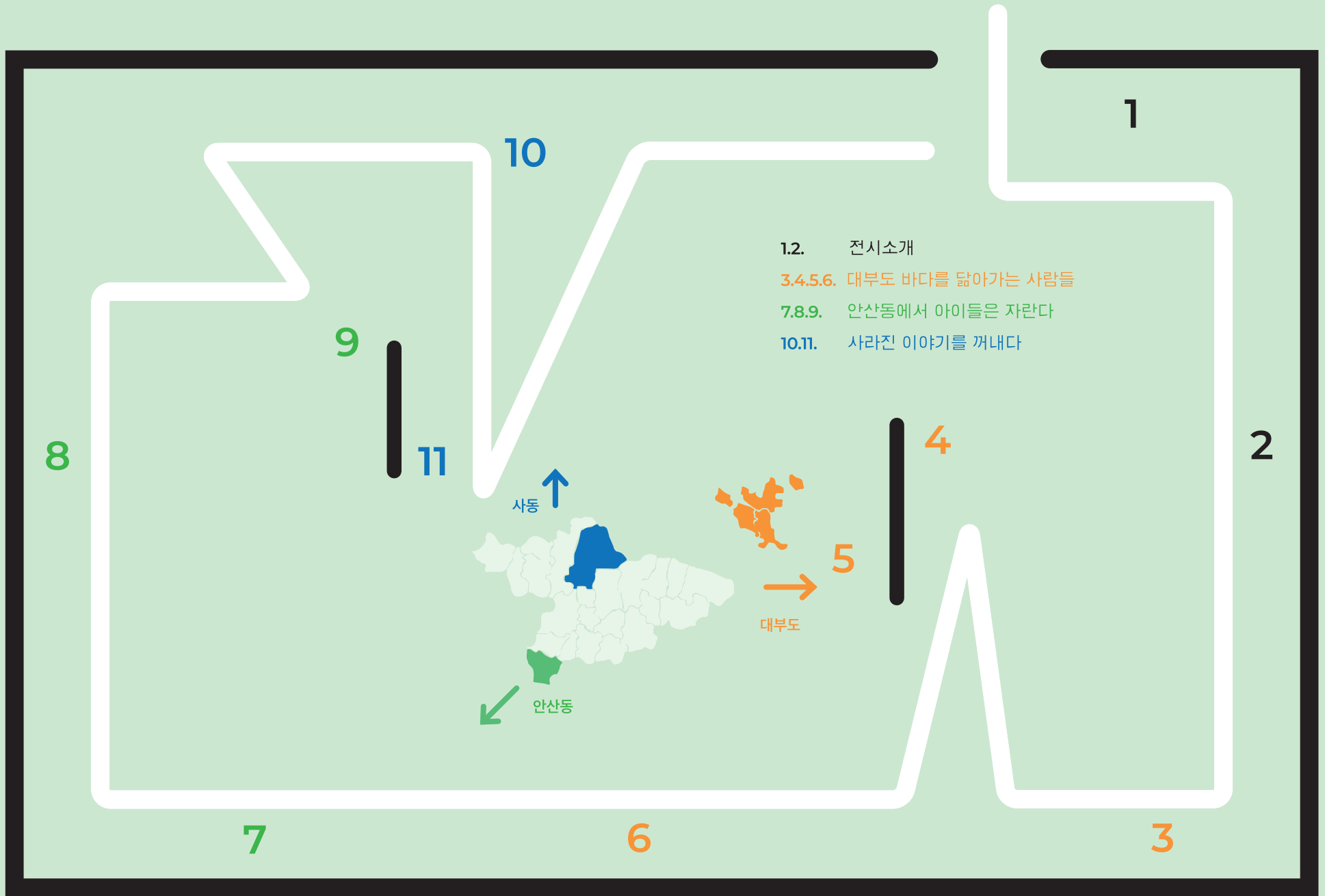
2023.11.10. ~ 2023.11.17.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제2관

안산시 ANSAN |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e Foundation | 안산문화재단 | 경기에코뮤지엄 | 2023 경기 시간의 이야기

2023 경기 에코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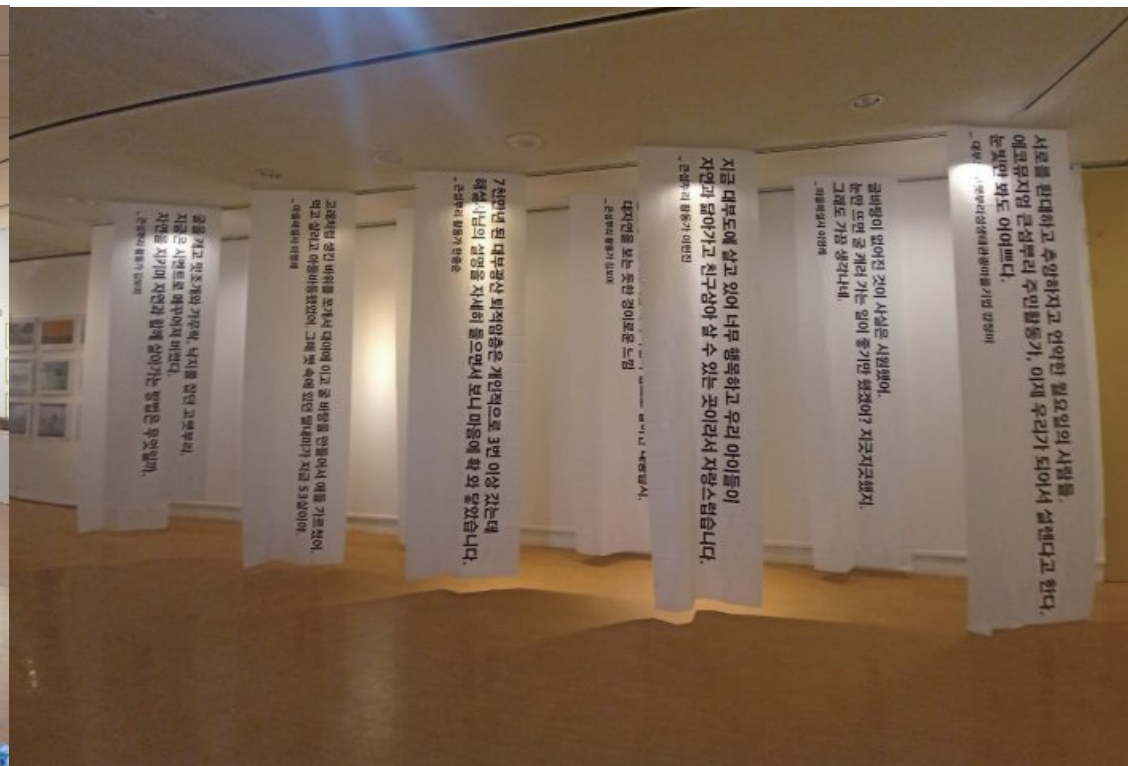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공유전시

생명이 나고 자라는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위대한 바탕이다.
 7천만년 전 공룡부터 사람까지,
 갯벌의 굴부터 습지의 철새까지,
 신령스러운 보호수부터 해풍을 맞는 포도나무까지
 개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풍토가 살아있는 안산.
 안산의 연원인 안산동의 읍치,
 바다 하나에 삶을 의탁한 대부도,
 서로를 보듬던 공동체가 살아있던 사리포구의
 땅과 시간의 이야기.
 뽕, 해초, 해당화를 머금은 천과 그릇,
 6백년 전 객사와 2023년의 마을을 그린 지도,
 안산의 기후와 토양에서 서식하는 지표종 그림,
 주민의 구술이 증명하는 희노애락은
 하늘, 바람, 바다에 감응하는 손짓이자 목소리이다.
 사람의 그릇은 땅이고
 사라지거나 사라져가는 모습을 살려내는 그들이 살았기에,
 그 땅은 아름답다.



대부도 바다를 닦아가는 사람들

대부도 마을해설사 큰섬뿌리 활동가가 되어가는 과정과 함께, 샴터로서의 대부도를 사진과 주민들의 목소리로 재현했습니다. 바다색과 해당화는 천에, 갯벌은 도자기에 담았습니다.





3. 대부도의 시간을 사진으로 담다

- _ 큰섬뿌리 활동가 Time Line
- _ 대부도 인생, 치열한 삶의 증거 (김영희)

4. 6. 대부도 땅의 기억에 머무는 사람들

- _ [영상] 2023 큰섬뿌리 활동가 양성과정 (6분 43초)
- _ [영상] 2022 큰섬뿌리 활동가 1기들의 활동모습 (8분 14초)
- _ [설치] 활동가가 기억하는 대부도 곳곳

5. [염색] 대부도를 물들이다 (한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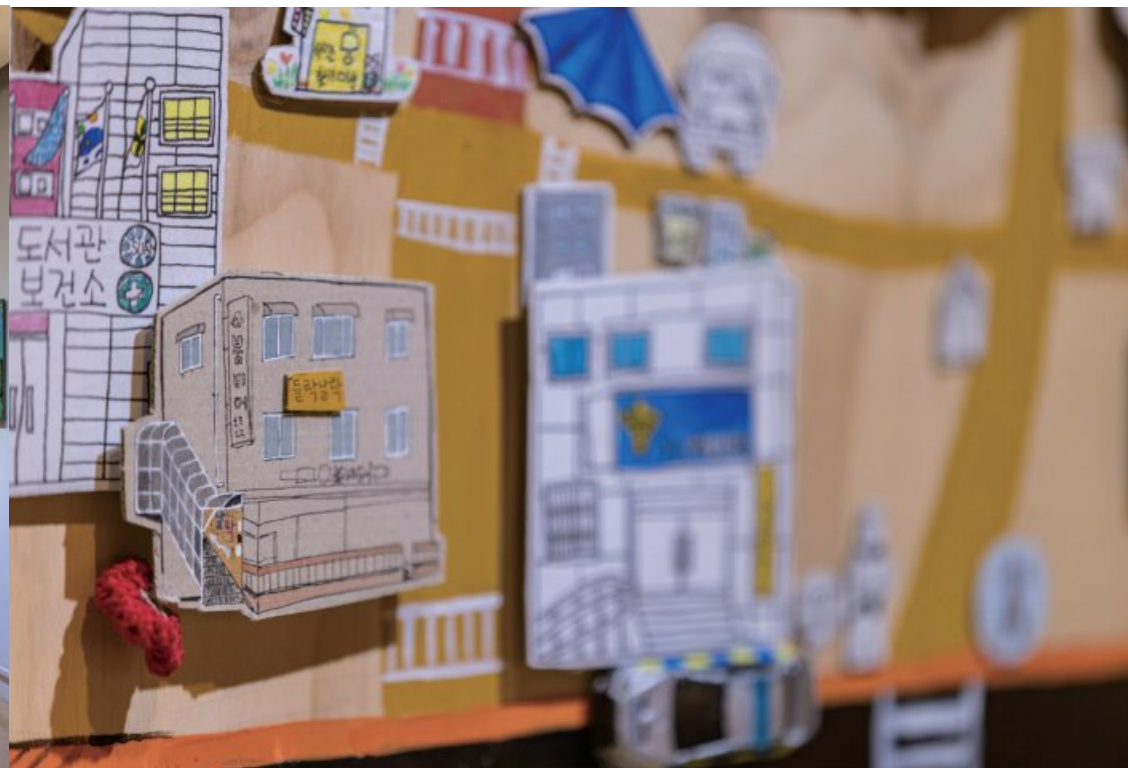
[도자기] 갯벌바른 도자기 (안승환)



전시회 이모저모

안산동에서 아이들은 자란다

아름다운 수암봉, 노거수, 객사의 자연 유산을 포함하여 안산동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뽑은 마을의 명소를 중심으로 직접 그린 그림과 지도를 전시했고, 추천하는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쇼츠를 제작했습니다.





7. 우리가 전하고 싶은 안산동 이야기

- _ [영상] 2023 온새미로 활동 소개 영상(4분 10초)
마을주민이 들려주는 안산동 이야기
- _ [영상] 노거수 (6분 18초)
650~690여년을 훌쩍 넘은 보호수 4그루와 함께 나이드는 마을의 일상들
- _ [영상] 청소년 크리에이터 쇼츠 (2분 38초)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안산동 명소

8. 우리들이 그린 안산동

- _ [평면] 청소년(어린이) 크리에이터들이 추천하는 우리마을 주요 명소
- _ [평면] 디지털로 변환한 입체 마을지도
- _ [평면] 주민들이 추천한 안산동 주요 명소
- _ [평면] 마을 아이들이 그린 안산 객사
- _ [평면] 우드버닝으로 그린 우리 마을

9. 2022 빵과 시간의 이야기

- _ [사진집] 2022년 안산동의 기록



전시회 이모저모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사리포구와 수인선 협궤열차의 전성기를 추억하고, 사라진 이후 현재까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여 책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협궤열차가 달리던 침목을 전시하여 마을이 어떻게 변해서 현재 모습을 이루었는지 살펴봄에 사라지는 소중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사라진 이야기를 꺼낸다

#사동지역사모임

사동지역사모임은 2014년부터 아이들에게 안전과 마을의 역사를 '어떻게 할까'로 고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 '사동열매부족',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낸다', '두번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낸다'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사라진 이야기

성황이었던 사리포구의 뱃길이 끊기고, 우리의 땀이었던 수인선마저 잊혔던 그 시절. 빛 바랜 사진, 낡은 침목, 마련한 옥소리 지금은 오래되고 낡은 것. 그곳에 머문 사람들의 이야기



도시개발로 사라진 것을 사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미 사라진 것,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예의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10. 사라진 이야기 꺼내기

- _ [영상] 사동지역사모임 소개 (5분)
- _ [영상] 내 고향 사리포구 (8분)
- _ [영상] 수인선 사리역 추억의 상자를 열다 (14분)
- _ [영상] 마을 기록자 이야기 (8분)
- _ [영상] 사진으로 보는 사리포구, 수인선
- _ [영상] 사진으로 보는 사동지역사모임 활동
- _ [유물] 1°C 마을 박물관 유물 책상1, 고서(古書)
- _ [유물] 1°C 마을 박물관 유물 책상 2, 그릇
- _ [유물] 수인선(水仁線) 침목(枕木)
- _ [설치] 사리울 (신민영, 강예림)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

- _ [레터링] 수인선, 사리역, 사리포구 구술내용
- _ [QR] 사리포구 낭독회
- _ [QR] 표류백화점

11. 사라진 이야기 꺼내기

- _ [체험] 필사공간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공유전시

|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
 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책임 시민축제부장 신항섭
 기획운영 시민축제부 김민정

| 프로젝트 참여

전시참여 대부도고랫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사동지역사모임, 온새미로
 전시기획 유한회사 별일사무소 이초영
 전시디자인 주식회사 남이디자인
 도움주신 분 임은빈

| 주최·주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에코뮤지엄, 안산에코뮤지엄







2023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주최·주관 안산시, 경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경기에코뮤지엄, 안산에코뮤지엄
발행일 2023. 12.
발행처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
발행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
총괄 안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책임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장 신항섭
기획운영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 김민정
편집 유한회사 별일사무소 이초영
구성·집필 김용란
사진 박영균
영상 엠카이브
참여단체 대부도고랫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사동지역사모임, 온새미로
운영지원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 강동하 김지안 유다인 당현진 유지형 오혜미
박소윤 김승유 국예림 부혜영 손수강

디자인 피스오브페이퍼
인쇄 플러스비전

*본 책은 2023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안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재)안산문화재단 (153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T. 031-481-4000 F. 031-481-0520 W. www.ansanart.com

땅과 시간의 이야기_

미니다큐_



공유전시



1년의 이야기



사리역의
추억



사동마을
기록자입니다



수암동을
소개합니다